

A1002 혼합1형(중신)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혼합1형(중신)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계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계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교보약사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이스트프링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일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혼합1형(중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20.04.01 ~ 2020.06.30	종속기간	최행으로 별도의 종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혼합1형(중신)	자산 총액 (A)	184,057	189,082	2.73
	부채 총액 (B)	7,211	972	-86.52
	순자산총액 (C=A-B)	176,847	188,110	6.37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97,058	97,592	0.55
	기준가격 (E=C/Dx1000)	1,822.07	1,927.52	5.79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문] 비중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수익을 변동성이 낮아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바이오, 금융, 경기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고, 2차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군을 추가하여 운용하였습니다. IT업종 내 반도체관련 종목군을 비중확대하여 운용하였으나 분기중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램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하반기 업황 둔화 우려로 추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반면, 인터넷, 헬스케어 업종은 전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 제조업과 달리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되어 분기중에도 수익률이 양호했고 펀드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펀드멘털 개선은 지연되고 있어 일부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순환매에 동참하여 수익을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기여한 종목은 LG화학, 삼성에스디에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이며, 부진한 영향을 미친 종목은 펩트론, 한국금융지주, 한미반도체, 삼성증권 등입니다.

[채권부문] 2분기 금융 시장은 COVID-19 사태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공격적인 각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공급하는 정책 등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경기지표는, 추가 악화보다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채권 시장내에서는 장기채권보다는 단기채권, 회사채보다는 국고채 등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경우 3월까지 코로나19의 팬데믹화로 투자심리가 훼손되며 크레딧이 급격히 약세를 보였으나, 4월 들어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따라서 은행채 및 공사채 중심으로 강세 전환되었으며 우량 등급은 약세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크레딧 매수세가 회복하는 가운데 은행채, 카드채, 은행채

필탈채 위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분기 말 환매 및 레포 규제 등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정체되는 흐름을 보인 후, 정부 및 한은 정책이 힘입어 우량 등급 단기 구간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나, 그 강도는 미약하였습니다. 펀드는 단기구간의 국고채 비중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 시기에 펀드 성과가 비교적 대비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펀드 듀레이션을 확대 운용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한 것도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국내 증시는 2분기말 기준 밸류에이션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유동성 공급 효과로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3월말부터 6월까지의 글로벌 및 국내 증시의 반등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효과 및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이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레벨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가 실제로 회복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정책 지원이 지속되고 있어 하락은 지지될 수 있겠으나, 실물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상승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각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장세는 전분기보다는 약해지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속도는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개인의 증시 유동성 공급이 축소된다면 추가 상승은 제한되어 기간조정 및 추가하락이 예상되어 이를 염두한 펀드운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업종(IT, 인터넷, 헬스케어)에 집중하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기간조정 국면에서 업종별 순환매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 순환매에 동참하는 매매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일수록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익요인이 살아 있는 업종, 종목에 집중하고 특히, 매출 증가율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성장모멘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부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COVID-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다시 락다운 등이 발생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 전파와 경제 활동이 공존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0%까지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당분간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통해 채권(특히, 국고채권) 발행량이 증가하여 채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미 현재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순수출이나 정부지출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 가계의 소비활동 등은 위축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은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채권 시장 내에서는 2분기와는 달리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국고채보다는 회사채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크레딧스프레드는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정책지속으로 여전체의 경우 5년 이하 만기 AA등급 이상 대부분 섹터에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느린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크레딧 이벤트에 대한 경계로 AA등급 미만 채권은 스프레드 축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실적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펀드는 우량한 회사채, 금융기관채를 편입하여 크레딧 채권의 비중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며 펀드 듀레이션은 비교지수 대비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혼합1형(중신)	5.79	0.98	3.27	2.5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3)	(0.05)	(0.73)	(0.11)
비교지수(벤치마크)	5.66	0.93	2.54	2.39

※당 펀드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준) 한경-KIS지수 국고채(3~5년) 4%, 국고채(5~10년) 18%, 특수채(2~3년) 4%, 특수채(3~5년) 21%, 은행채 AA-이상(1~2년) 4%, 기타금융채 AA-이상(1~2년) 3%, 기타금융채 AA-이상(2~3년) 4%, 회사채 AA-이상(1~2년) 3%, 회사채 AA-이상(2~3년) 4%, KOSPI 25%, 유동성 10%

(변경) KIS종합채권지수 65%, KOSPI 25%, 유동성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것이지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혼합1형(중신)	2.50	0.90	0.30	7.9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1)	(-2.34)	(-3.38)	(-4.51)
비교지수(벤치마크)	2.39	3.24	3.68	12.42

※당 펀드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준) 한경-KIS지수 국고채(3~5년) 4%, 국고채(5~10년) 18%, 특수채(2~3년) 4%, 특수채(3~5년) 21%, 은행채 AA-이상(1~2년) 4%, 기타금융채 AA-이상(1~2년) 3%, 기타금융채 AA-이상(2~3년) 4%, 회사채 AA-이상(1~2년) 3%, 회사채 AA-이상(2~3년) 4%, KOSPI 25%, 유동성 10%

(변경) KIS종합채권지수 65%, KOSPI 25%, 유동성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것이지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전기	-9,017	1,162	0	0	0	0	0	0	44	-577	-8,388
당기	9,641	1,247	0	0	1	0	0	0	23	-673	10,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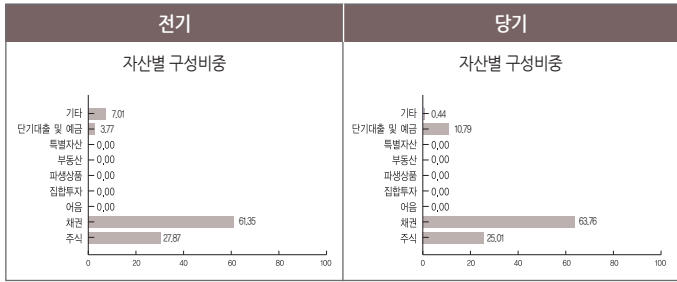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47,282 (25.01)	120,551 (63.76)	0 (0.00)	0 (0.00)	1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409 (10.79)	838 (0.44)	189,082 (100.00)
합계	47,282	120,551	0	0	1	0	0	0	0	20,409	838	189,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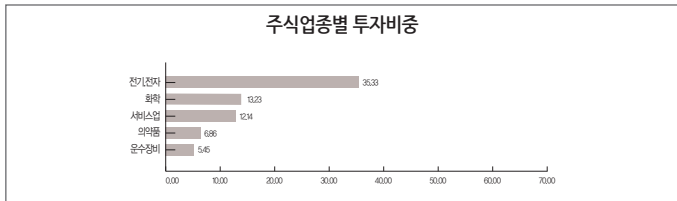
※ ():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업종명	비중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5.33	6 유통업	3.68
2 화학	13.23	7 금융업	3.60
3 서비스업	12.14	8 음식료품	3.53
4 의약품	6.86	9 통신업	1.99
5 운수장비	5.45	10 기타	14.19



주)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10.79	6	채권 SK290-1	4.55
2	주식 삼성전자	5.60	7	채권 신한카드2049-3	4.54
3	채권 국고01500-5003(20-2)	5.21	8	채권 신한카드2029-2	4.34
4	채권 신한은행23-08-이-3-B	4.64	9	채권 국고01500-2612(16-8)	4.30
5	채권 신한은행23-04-이-3-A	4.59	10	채권 하나은행42-02이2갑-22	4.27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200,446	10,584	5.6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통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500-5003(20-2)	10,050	9,855	대한민국	KRW	2020-03-10	2050-03-10		N/A	5.21
신한은행23-08-이-3-B	8,700	8,771	대한민국	KRW	2019-08-12	2022-08-12		AAA	4.64
신한은행23-04-이-3-A	8,500	8,673	대한민국	KRW	2019-04-08	2022-04-08		AAA	4.59
SK290-1	8,500	8,596	대한민국	KRW	2019-11-28	2022-11-28		AA+	4.55
신한카드2049-3	8,500	8,585	대한민국	KRW	2019-10-07	2024-10-07		AA+	4.54
신한카드2029-2	8,000	8,200	대한민국	KRW	2019-04-23	2024-04-23		AA+	4.34
국고01500-2612(16-8)	8,000	8,139	대한민국	KRW	2016-12-10	2026-12-10		N/A	4.30
하나은행42-02이2갑-22	8,000	8,077	대한민국	KRW	2019-02-22	2021-02-22		AAA	4.2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0,406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459,419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8	2,459,419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459,419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45	0.02	43	0.02	
판매회사	301	0.16	303	0.1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5	0.00	5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8	0.00	8	0.00	
보수합계	358	0.20	359	0.20	
기타비용	1	0.00	1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81	0.04	104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81	0.04	104	0.06
증권거래세	92	0.05	164	0.09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영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보통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924	0.1178	0.9102
당기	0.7911	0.1545	0.9456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410,879	51,967	2,052,833	65,582	133.81	536.69

※ 매매회전을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19-10-01 ~ 2019-12-31	2020-01-01 ~ 2020-03-31	2020-04-01 ~ 2020-06-30
47.87	72.52	133.81